



# 물푸레나무로 만든 남자와 느릅나무로 만든 여자

글 | 신 현 배  
시인·아동문학가

북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세상은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반쪽은 니플하임이라고 하여 안개와 서리가 가득 찬 얼음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쪽은 무스펠하임이라고 하여 뜨거운 불로 가득 찬 불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니플하임과 무스펠하임 사이에는 기둥(갈라진 곳)라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스펠하임의 뜨거운 기운이 니플하임의 얼음을 녹이자, 이미르라는 거인과 아우드훔라라는 암소가 태어났습니다.

이미르는 거인족의 조상으로, 성질이 사납고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시커먼 얼굴, 번들번들한 대머리, 매서운 눈, 독수리 발톱 같은 손, 거친 숨결……. 보기만 해도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르는 어둠 속을 헤매다가 아우드훔라를 발견했습니다. 아우드훔라의 젖꼭지에서는 뿌연 젖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이미르는 이 젖을 빨아 먹었습니다.

아우드훔라는 이미르에게 젖을 먹이면서 부드러운 혀로 얼음을 핥았습니다. 하루 종일 핥자 머리카락이 나타났고, 이튿날에는 머리통, 그 다음 날에는 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부리라는

신이었습니다.

이미르도 후손을 낳았는데, 젖을 먹고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그의 겨드랑이에서 여자 거인과 남자 거인이 나왔고, 다리 사이에서 머리 여섯 개의 거인이 나온 것입니다. 이리하여 거인족이 생겨나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부리는 아들 볼을 얻었는데, 볼이 거인족의 여인 베스트라와 결혼하여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큰아들이 오딘, 둘째 아들이 빌리, 막내아들이 베입니다. 세 신은 세상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만나는 것은 흉측한 모습의 거인족뿐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얼음과 불밖에 없어 삭막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고 나서 오딘이 두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그러려면 거인족을 없애 버려야 해.”

“거인족의 우두머리인 이미르부터 해치우자. 그래야 거인들을 몰아낼 수 있어.”

오딘과 두 동생은 이미르를 처치하기로 하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딘은 낮잠을 자고 있는 이미르를 보고 두 동생을 불렀습니다.



“기회가 왔다. 지금 이미르를 해치우자.”  
 칼과 도끼로 무장한 오딘 형제는 이미르에게 덤벼 들었습니다. 이미르는 낮잠에서 깨어나 맨몸으로 맞섰지만 오딘 형제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미르는 죽을 때 엄청난 피를 쏟았습니다. 그 피는 강물처럼 흘러 내려 얼음을 녹였고, 홍수가 일어나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거인족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르젤 미가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달아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오딘은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동생과 이미르의 시체를 들고 기능가라는 골짜기로 갔습니다.  
 세 신은 이미르의 살로 땅을 만들고, 커다란 뼈로 산과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빨과 턱, 부서진 뼈를 땅 위에 뿌려 바위와 돌, 모래 등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으로는 풀과 나무를 만들고, 이미르가 흘린 피로 바다와 강,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세 신은 이미르의 두개골을 공중으로 던져 하늘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미르의 몸이 썩어 구더기 같은 난쟁이들이 나오자, 그들로 하여금 동서남북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미르의 두개골이 불 나라인 무스펠하임의 불빛을 가려 버려 온 땅이 어두컴컴해진 것입니다.  
 세 신은 무스펠하임의 불꽃을 하늘에 뿌려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불꽃을 하늘에 달아매어 해와 달로 삼았습니다.  
 오딘은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상 끝으로 달아난 거인족 부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이 살아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될 거야. 후손을 퍼뜨려 세력이 커지면 틀림없이 우리한테 덤벼들걸.”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울타리를 치는 게 어떨까? 거인족에게 그 안에서 살게 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  
 “오, 그게 좋겠다.”  
 오딘 형제는 의논하여 바다를 따라 울타리를 둘러 쳤습니다. 이것은 이미르의 눈썹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쪽을 요툰헤임이라 부르고 거인 부부를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딘이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갈 집을 짓자. 집을 지으려면 연장이 있어야겠지. 연장을 만들 대장간부터 세우자.”  
 오딘은 대장간을 세워 연장을 만든 뒤, 연장으로 황금 궁전을 여러 채 지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스가르드라고 불리는 신들의 나라였습니다.  
 오딘 형제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세상을 둘러보는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하루는 셋이서 바닷가를 거닐다가 파도에 떠밀려온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물푸레나무와 느릅나무였습니다. 오딘이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저 나무로 사람을 만들까? 우리를 닮은 사람을 한 쌍 만들어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거야.”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두 동생도 찬성하여 오딘은 나무들을 아스가르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들을 잘 다듬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물푸레나무로는 남자를 만들고,



느릅나무로는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려면 생명이 있어야겠지? 나는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겠어.”  
 오딘이 이렇게 말하자 빌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생각하는 힘과 지혜를 주겠어. 아무래도 사람은 짐승들보다 나아야 하니까.”  
 이어서 막내 베도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고 들을 뿐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어.”  
 세 신은 사람에게 이렇듯 특별한 능력을 주고는, 남자에게는 에시, 여자에게는 엘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에시와 엘마는 결혼하여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점점 불어나 세상에 널리 퍼져 살게 되었습니다.  
 오딘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미드가르드라고 불렀습니다.  
 신들의 나라인 아스가르드는 산꼭대기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아스가르드에는 가장 높은 신인 오딘을 비롯하여 여러 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딘은 신들의 왕으로서 열두 신하를 거느리고 아스가르드와 미드가르드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스가르드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이 부서서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뭐라고? 난데없이 그게 무슨 말이나?”  
 오딘은 왕좌에 앉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신들의 왕이시여, 하늘에는 해와 달이 나란히 떠 있습니다. 어찌나 밝고 눈부신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알겠다. 너희들의 고민을 풀어 줄 테니 돌아들 가거라.”  
 오딘은 사람들을 돌려보낸 뒤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한 신하가 오딘에게 아뢰었습니다.  
 “거인족의 여인 가운데 나드(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거인 나르비의 딸인데, 몸이 검고 머리도 눈동자도 새까맣습니다. 그녀에게 마차를 주어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건너가게 하는 게 어떨까요?”  
 “나드라면 다그라(낮)라는 아들을 둔 여인 아니냐? 나도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아들은 어머니와는 달리 몸이 희고 눈부시게 아름답다며? 어머니와 아들에게 번갈아 가며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건너가게 하면 되겠구나. 어머니 나드가 하늘을 건너갈 때는 사람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테니 말이야.”  
 오딘의 명령으로 나드와 다그라는 마차를 타고 교대로 하늘을 돌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나드가 돌 때는 캄캄한 밤이 찾아와 잠을 자고, 다그라가 돌 때는 낮이 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